



화보로 보는 봄 시즌 아웃도어

큐티·섹시 ‘스타일 나네’

블랙야크 ‘아이유 등산화’ 343 아크 GTX “등산 30%·하산 40%·일상 30% 체력 분배” 아이더, 안무가 노제 앞세워 역동성 강조 일상복으로도 손색없는 다채로운 스타일

봄이다. 이맘때가 되면 패션업계는 스타들을 내세운 화보를 앞 다퉈 공개하며 봄소식을 알린다. 화보는 친숙한 스타를 보는 즐거움과 봄 시즌 신상품에 대한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브랜드들은 봄 고객의 눈도장을 받기 위해 화려하지만 더 없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아웃도어 브랜드들 도 때때로 경쟁에 뛰어 들었다.

● ‘귀엽고 발달하게’... 블랙야크 아이유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의 ‘스프링 퀸’은 아이유. 블랙야크는 아이유와 함께 한 등산화 ‘343 아크(ARC) GTX’ 광고 캠페인 영상을 공개했다.

‘343’이라는 숫자는 ‘등산 30%, 하산 40%, 일상 30%’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산을 오를 때 30%, 내려올 때 40%의 체력을 사용하라는 뜻이다. 안전하게 산행을 하고 난 뒤 남은 30%의 에너지로 일상을 즐기자는 것. 효율적인 에너지 배분에 대한 얘기다. ‘343 아크 GTX’는 지난해 ‘아이유 등산화’로 불리며 블랙야크 신발 중 단일 품목으로 역대 최대 판매를 기록한 ‘야크 343 D GTX’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공개된 영상에서 아이유는 귀엽고 발달하면서 건강미 넘치는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고 있다. 아이유는 “정상까지 올라가 왜 답답하게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후 “처음 신었을 때 쾌적함을 끝까지, 발끝까지 쿨하게”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정상에서 시원함을 만끽하는 모습을 표현했다. 이 제품의 쾌적한 기능성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 ‘역동적 포즈와 카리스마’... 아이더 노제

아이더는 브랜드의 새 얼굴로 스타 댄서 노제(NO:ZE)를 선택하고 S/S(봄 여름) 화보를 공개했다. 젊고 역동적인 노제의 이미지를 최대한 살려 아이더가 밀고 있는 ‘요즘 아웃도어 스타일’을 완성했다.



블랙야크 등산화 ‘343 아크(ARC) GTX’ 광고 캠페인 영상 속의 아이유. 정상에서의 ‘시원함’을 표현했다. 사진제공 | 블랙야크

화보 속에서 노제는 봄, 여름에 어울리는 경쾌한 컬러를 배경으로 안무가답게 역동적인 포즈와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을 보여준다. 아이유와는 사뭇 다른 콘셉트. 아노락과 우븐팬츠로 스트리트 스타일을 연출하는 한편 다채로운 컬러의 트레이닝 자켓에 심플한 팬츠를 매치해 일상에서도 가볍게 입을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아웃도어 스타일을 선보였다.

미국 포틀랜드에서 시작된 친환경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나우(nau)는 전속 모델 안효섭, 연우와 함께 한 패션필름 ‘그린 피크닉’ 편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포틀랜드의 자연 친화적 라이프스타일을 배경으로 그린 피크닉을 즐기는 6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가이드 역할을 맡았다. TV를 커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영상에서 이들은 숲 속에서의 여유로운 마음가짐, 자연 그대로 안전하게 즐기, 가벼운 운동과 일화용품 줄이기, 비치코밍(바닷가로 밀려든 쓰레기를 줍는 활동) 등을 제안하며 나무가 지향하는 친환경 아웃도어 컬러를 위트있게 전달한다.

네파도 ‘자연과 함께 하는 진짜 나의 시간’을 콘셉트로 등산, 트레킹, 캠핑 등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모습을 담은 시즌 화보를 선보였다. 테크니컬 웨어 기반의 네파 마운틴 라인을 중심으로 유틸리티 웨어로 구성된 C-TR라인, 활동성을 극대화한 액티브 라인 등을 다양하게 만날 수 있다.

네파는 올해 ‘자연으로부터 시작된 브랜드’라는 정체성을 강화하며 한 단계 도약에 나선다. 아웃도어의 본질인 기능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네파만의 스타일리시한 감성을 더해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방송가에서 가장 ‘핫’한 안무가로 꼽히는 노제. 노제는 아이더와 함께 진행한 S/S 화보에서 역동적인 포즈와 카리스마를 뽐내며 강렬하면서도 화려한 아웃도어룩을 선보였다. 사진제공 | 아이더

17개 테마 ‘화담숲’ 18일 문 연다

2연속 한국관광 100선 ‘힐링 명소’ 경기 광주까지 서울서 차로 1시간 100% 사전예약제...오늘부터 접수

2회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오른 경기도 광주 화담숲이 18일 개원한다. 올해 화담숲은 시간대별 입장 인원을 분산시켜

유희고 안전한 관람이 되도록 100%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예약은 4일 오후 1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화담숲은 LG상록재단이 자연생태환경 복원과 보호를 위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생태수목원이다. 16만5289㎡ 규모로 소나무정원, 본재원, 이끼원 등 17개의 테마원들로 이루어졌다. 서울에서

차로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어 수도권의 대표적인 힐링 공간으로 꼽힌다.

이번 개원에 맞춰 자연 속의 봄기운을 느끼고 싶어하는 상춘객을 위한 준비를 했다. 5.3km의 완만한 산책길을 거닐다 보면 봄의 시작을 알리는 산수유를 비롯해 복수초, 풍년화 등 각종 봄 야생화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4월까지 화담숲에서는 2000여 그루의 하얀 자작나무와 수만 송이의 노란 수선화가 어우러져 이국적인 풍광을 만들어 내 봄 날들이에 나선 관람객들을 사로

잡는다. 올해 화담숲은 새단장을 통해 연간 계절별로 각종 축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화담숲은 18일 개원을 시작으로 11월 말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입장 마감은 오후 5시이다. 입장료는 일반 1만 원, 경로 8000원, 어린이 6000원이며 모노레일 이용요금도 별도다. 3월과 4월에는 매주 월요일에 휴원이다. 그 외 별도의 휴원 일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3월 4일(금) 음력: 2월 2일 문의: (02) 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의욕이 충만하며 생각해보던 일을 시작하는 시기이다. 현 상황에서 확장이나 변화를 시도하기 위하여 과감한 행동이 따라야 하며 너무 주위를 의식할 필요는 없다. 용기를 가져라. 최후까지 노력하면 달성된다. 일을 마무리하는 날이다.	고귀할수록 비천함에 봉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라. 뛰어난 재능, 아름다운 용모는 겸허함으로써 빛나는 것이다.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며, 지금은 재능을 감춰두고 조용히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취직 시 복서 방향으로 머리를 향하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을 간절히 필요로 한다. 능력이나 용기를 잃고 좌절할 경우 많은 실망을 안겨줄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말라.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날이다. 그러나 운이 좋은 사람은 상속하거나 복권에 당첨되기도 한다.	사방이 위협으로 막혔기 때문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이럴 때는 되도록 무리를 하지 말고 쉬운 길을 골라서 식견 있는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도 필요하다.	승진 운이 있으니 말은바 임무에 충실하되 경계감을 삼가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계획을 실천에 옮겨라. 큰 발전이 기대 된다. 구직자는 원하는 곳에 이력서를 넣으려 취업이 가능하다. 현재는 고독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될 것이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로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순간에도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혼돈의 시기이다. 전환기와 같다.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시도하라. 방해물이 없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혁신의 기운이 강한 날이다. 좋은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서둘러서는 마라. 과일이 익듯이 무르익은 다음에야 상대가 응해 온다. 거래에 있어서도 큰 건수가 들어온다. 이쪽은 강력히 밀고 나가도 괜찮다. 횡재수가 있는 날이다. 열심히 움직여라.	음과 양의 기운이 서로 통하는 날이다. 마음의 교류가 없는 사회생활이 성립되지 않는다. 운세는 좋은 때이며 직감에 호소하여 민첩하게 행동하면 효과를 본다. 마음을 바르고 끈기 가지면 이룬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시기이다.	쇠운의 극을 나타내는 기운이다. 함부로 안간힘을 쓰지 말고 조용히 겨울철이 끝날 때를 기다려야 한다. 겨울이 오면 불이 멀지 않은 법이다. 오늘은 외로워지고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 짓고 싶어진다. 좋은 마무리를 찾는 시기이다.	이 보 전진을 위해 일부 후퇴할 시기이다. 따라서 급진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은 좋지 않으므로 모든 일을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며 남의 뒤를 쫓아간다는 식으로 생활한다면 별 무리가 없었다. 신중하고 물기를 거둬야 한다.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 가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판재, 송사 조심해야 한다.	냉전 상태를 심각하게 물고 가면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견에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생각과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신경이 예민해지는 날이다.

레저

스포츠동아 2022년 3월 4일 금요일 15



서울관광재단이 서울다누림관광센터를 통해 무료 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식 경사로. 사진제공 | 서울관광재단

서울관광재단, 여행용 보조기기 무상 대여

서울관광재단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 관광약자와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비영리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여행용 보조기기 대여서비스를 2일부터 시작했다.

대여 품목은 휠체어를 포함한 15종 34점으로 이중 가장 이용률이 높은 품목은 전동으로 움직이며 쉽게 조종도 가능한 수전동 휠체어다. 이 외에 숙박시설 투숙 시 유용한 이동형 리프트와 샤워 휠체어, 턱이나 1~3간의 계단에서 사용 가능한 휴대용 경사로 등 관광약자의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보조기기를 제공한다.

여행용 보조기기는 최소 3일부터 최대 15일까지 무료이며 서울 내 회담 장소에서 수령하고 반납할 수 있다. 대여 신청은 서울다누림관광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서울다누림관광센터(1670-0880)로 하면 된다.

서울다누림관광센터는 4월부터는 휠체어 탑승석을 갖춘 서울다누림 버스와 미니밴도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K2, 하이킹화 플라이하이크 2022년형 출시



아웃도어 브랜드 K2가 대표 하이킹화인 플라이하이크 시리즈의 2022년형 신제품 ‘플라이하이크 클라우드’(사진)를 출시했다. 혁신적인 쿠셔닝으로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운 발걸음을 선사하는 하이킹화다. 신발 중창(미드솔)에 폼의 신소재인 그래핀 프레임을 장착해 워킹 시 발 전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한다. 발의 피로도를 줄여주며 최적의 착화감을 제공한다. 신발의 내피와 외피를 하나로 접착시킨 본딩 기술인 고어텍스 인비저블 핏을 적용해 가벼울 뿐 아니라 투습, 방수, 방풍 기능이 탁월해 장시간 착화에도 발을 쾌적하게 유지시켜 준다. 다이얼을 돌려 신발을 간편하게 조이고 푸는 보아 핏 시스템을 적용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오늘의 날씨			4일(금)		
서울 20/60	인천 10/60	춘천 20/70	강릉 0/0	대전 20/60	전주 20/60
1 14	2 11	-7 14	3 17	-3 16	1 17
광주 20/20	대구 20/20	부산 20/20	4 17	-1 17	5 15
창원 20/20	제주 20/2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2 14	8 17	최저 최고온도 C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77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립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송욱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본·투고 02-361-1616 sol@donga.com